

축! 입학



환영합니다



교장 김은미

매서운 추위도 지나가고 봄이 오는 기운을 느끼는 오늘 300여명의 환일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 환일과 함께할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환일에서의 새로운 학창시절의 시작은 주님께로부터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인 “경천”을 섬기며 여러분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하이원에서의 오리엔테이션으로 학교의 학사일정과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개년 간의 학사 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환일의 정신을 먹고 자라 먼 미래로의 순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창의적인 환일인이 되는 방법



교감 이정철

어느 국내 유명교수가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아들 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답안지들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답안지들을 훑어 보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못 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량도 충분했고, 내용도 정확한 이론에 기반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수 표기 옆에는 모두 붉은 글씨로 담당 교수의 지적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수가 남긴 지적사항에 대해 묻자, 아들은 “아버지 내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내 생각을 못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생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물으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끝내 교과서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어디선가 주워들은 문구를 되풀이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의 반응이 천편일률적이게 된

것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갖게 하는, 다시 말해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노력은 결국 ‘관심’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한 ‘관심’과 더불어,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상에 대해 치밀하게 탐구해보려는 성실함이 뒷받침될 때, 어느 날에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수한 학업성적으로도 귀결됩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지만, 그런 의식적인 관심과 부단한 노력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암기식 방법에 치우쳐 학습을 해 온 입학생이라면, 우선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져보는 습관부터 가져보도록 합니다.

간부 교사 소개



교감 이정철



교무부장 박종관



연구부장 최원호



생활지도부장 강홍구



진로·진학부장 임부현



자연과학주임 김희경



인문사회주임 홍승강



특성화교육주임 김호숙



1학년주임 구정희



2학년주임 김현욱



3학년인문과정주임 김주경



3학년자연과정주임 허성희

나를 탈출시켜라!

교무부장 박종관 목사

사람들은 저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3:13).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말입니다.

‘사적인 감정에서 탈출하라.’ 바울이 잊으려 했던 한 가지 일은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의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청산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사적인 감정에서 탈출해야 온전히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는 간증입니다.

바울이 탈출하려는 사적인 감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트 감정입니다.(빌

3:4~6) 한마디로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였고 그의 가문은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불편한 감정입니다.(빌3:13 / 행15:36~41) 바울은 바나바와 의견충돌로 인하여 아주 오랜 기간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감정이 바울의 신앙을 절뚝거리게 했으며, 온전히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벗어났다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빌3:7~8).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 한다고 했습니다(빌3:9).

사랑하는 신일생 여러분 중학교 때 부모와 교우, 친구관계에서 나뉘던 감정들에서 나를 탈출시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밟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자

연구부장 최원호

안녕하세요. 환일고등학교 연구부장입니다.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3월 늘 생기와 의욕이 넘치는 모습과 교정에 생동감도 기대합니다. 2017년 신입생 만남을 기대하고 진심으로 여러분 입학축하합니다.

본인이 지원한 환일고에서 많은 성장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3일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려져서 결심한 일을 3일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심한 마음을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하는 것보다 하루 이를 건너뛰어도 조금씩 노력하는 경우가 훨씬 자신의 이상과 목표에 가까워 질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게 할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꾸준히 하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역량을 믿고 목표도 높게 잡읍시다. 남들에게는 작은 성취라고 보일지라도 큰 목표를 이루는데 자신감으로 넘쳐 3년 뒤에는 커다란 성취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목표가 현재를 이기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유혹과 나약함으로 포기하는 것보다 남들과 똑같이 보이는 하루라도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하고 노력할 때 목표를 이룬 미래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입학축하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지도부장 강홍구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때로는 환일고등학교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불평불만들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남아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학교 언덕은 왜 이리 높은지.... 하지만 1,2학년 때 떠밀려서 하던 자율학습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힘겹게 오르던 학교 언덕은 지치지 않는 체력의 원동력이 되어 대학 입

시를 앞두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써 1년을 잘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것을 진행시킬 때가 있지만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페이스메이커

진로진학부장 임부현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이 3년간의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바람에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를 만드세요. 페이스메이커(pacemaker)는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경주나 자전거 경기 따위에서, 기종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폴코스 마라톤 경기에 출전했을 때 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셨던 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분은 저에게 고비가 와서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곁에서 격려해 주면서 저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3년간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인생에 평생 함께 할 진정한 친구를 만드십시오. 인생의 마라톤에서 힘들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면 힘겨운 경기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인생의 고비를 지혜롭게 이겨내십시오. 마라톤을 하다보면 여러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5킬로 단위로 오다가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그 거리는 짧아지면서 더 이상 뛰는 것조차 힘들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마라톤 폴코스는 35킬로 지점, 32킬로 코스는 25킬로 지점, 하프코스는 15킬로 지점, 10킬로 코스에서는 7킬로 지점이 가장 경기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한계 지점입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고비가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다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비가 왔을 때 그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고비를 넘지 못해 돌아갈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생활의 고비를 만날 때 선배, 친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혜롭게 고비를 넘기시길 바랍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마라톤 경기를 하다보면 매번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면서 때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경기를 포기하고 걸어들어 오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비록 최선의 기록은 아니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고 결승점에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경기를 포기했다면 스스로에 대한 질책과 후회로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학교생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결승점에 골인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봉화산 언덕에 우뚝 솟은, 70년 전통이 살아있는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쟁상대가 아닌 목표를 보고 달려라

1학년 주임교사 구정희

신입생 여러분 이제 출발지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 자세로, 고등학생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과 동시에, 자랑스러운 환일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환일고등학교를 성장의 터전으로 배우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친구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내적 성장도 이루고, 믿음으로 내면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힘은 여러분의 성격과 상관없이 굳건히 서게 하는 가치관을 만들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매 순간 믿음의 자양분으로 혼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가지시고 계획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동화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빠른 토끼가 멀리 앞질러 차이를 벌려둔 후에 중간지점에서 낮잠을 잤고 그사이 거북이가 토끼를 추월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토끼는 경쟁상대를 보고 달렸고,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 달렸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경쟁상대를 보고 ‘에 보다는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목표는 잊어버리고 경쟁상대만 생각합니다. 경쟁상대는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 장래희망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경쟁상대를 정하는 순간 불행해 집니다. 과거의 나보다 더 성장한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수학이 중요합니다. 단위수도 높고 내신 변별도 수학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

학교 수학공부 방법은 중학교 공부방법과 좀 달라야 합니다. 개념에만 치중하면 안되고 많은 문제 유형들을 접해서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주력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개념 정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념을 확장시켜 문제 적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중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도 고등학교 수학을 제대로 따라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Ⅰ, 수Ⅱ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나가기 위한 기초과목이라 중요합니다. 자신의 수학공부 방법의 문제점을 깨닫고 제대로 공부에 임해야 합니다. 빠르게 나가는 학교 진도를 따라가야 하므로 수학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수학은 갈수록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차근차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할게 너무 많아 포기하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시험도 많이 보게 되는데, 섀령 성적과 무관한 쪽지 시험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소신이 필요하고 부분점수 1점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늘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새로 만난 학생들의 맑은 눈망울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써 벅차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란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1학년 담임 및 신입생 소개

학급	담임	신입생 명단
1반	 구정희(담당과목: 수학)	강민재, 강산해, 김정민, 김도현, 김동건, 김민재, 김상연, 김선중, 김유하, 김준수, 김철규, 김태연, 김태원, 김현민, 남동현, 백승철, 변민재, 양세진, 윤도훈, 이정연, 이정우, 이상호, 이주형, 이준혁, 임규빈, 하건욱, 현동윤, 황동현, 황두겸, 최종민, 오준서
2반	 이은혜(담당과목: 물리)	강민성, 권혁준, 김동규, 김민석, 김세빈, 김지원, 김태수, 김한누리, 김호준, 나백철, 노종범, 민동진, 박서로, 박화평, 양윤기, 엄준범, 윤덕현, 윤준서, 이기정, 이민구, 이재영, 이준성, 이초신, 이하운, 장은성, 정영철, 채성원, 최지호, 최지환, 최진원
3반	 홍승강(담당과목: 국어)	강원준, 김건희, 김민준, 김범무, 김상준, 김종민, 김종완, 김태경, 김희건, 박석주, 박성호, 서한민, 유시현, 윤준혁, 윤하늘, 이동준, 이민재, 이승호, 이유원, 이인규, 이재정, 이주형, 이태우, 이후승, 전형석, 조민호, 최유빈, 최홍석, 황호연, 이정원
4반	 배수화(담당과목: 수학)	강한수, 강형구, 김동현, 김동희, 김민규, 김수민, 김영건, 김재혁, 박성준, 박진성, 박태양, 백성민, 복필규, 서진영, 서형준, 신여호수아, 안석호, 유동우, 이도연, 이민우, 이성재, 이태훈, 정동욱, 정승주, 정유진, 정태우, 진용준, 최승연, 최형준, 박준수
5반	 최진성(담당과목: 체육)	권용빈, 김민석, 김준수, 김지수, 김진세, 김현우, 모성빈, 박정훈, 박지훈, 박형진, 신동원, 신성민, 신지훈, 신찬민, 안주영, 양대성, 윤호경, 이다민, 이동현, 이은철, 이찬형, 이창재, 장민서, 장현태, 정우진, 정원서, 정제홍, 조민준, 조성효, 허지석
6반	 최선영(담당과목: 화학)	김도균, 김민성, 김민혁, 김상엽, 김예찬, 김우영, 김우진, 김재민, 김지우, 김태경, 김태우, 김호현, 김희수, 박보현, 박신우, 박윤재, 박재현, 박주호, 박지원, 박찬혁, 신재현, 안준영, 윤대영, 윤여중, 윤찬영, 이정현, 이종혁, 장원준, 정영우, 최호재
7반	 김동현(담당과목: 생물)	강현우, 김민재, 김승준, 김어진, 김응균, 박규홍, 박승빈, 박준석, 서한미루, 송찬희, 신원용, 오종혁, 윤준영, 은서준, 이시환, 이원민, 이재현, 이준후, 임동주, 임준성, 전제영, 정지민, 정찬일, 최다인, 최민서, 최상현, 최수빈, 최유민, 황동건, 방종현
8반	 정지호(담당과목: 국어)	강성민, 고경한, 권연수, 김광현, 김동건, 김선규, 김준호, 나형진, 라경현, 모준성, 손송호, 신재우, 신지성, 신지환, 이정민, 이정석, 이진호, 이찬용, 이태호, 이현수이호준, 장민석, 정우현, 정준영, 정진우, 정호영, 최예성, 추준영, 한태준, 황원준
9반	 이은주(담당과목: 미술)	길윤수, 김건우, 김민재, 김성윤, 김예준, 김재윤, 김지혁, 김태경, 김한주, 박민혁, 박장호, 박태영, 배동연, 백민음, 서해용, 양성민, 엄재욱, 연정모, 오민우, 유시훈, 윤상현, 이유민, 이윤학, 이재동, 이태경, 임재성, 장요한, 정승윤, 조성우, 허성주
10반	 이준형(담당과목: 영어)	강남규, 고영준, 기호준, 김정민, 김규민, 김규찬, 김동환, 김명국, 김상비, 김태우, 김현우, 박도현, 박효상, 설동혁, 손길상, 신준혁, 오경준, 우동민, 유근찬, 이병준, 이상원, 이연우, 이예찬, 이의훈, 장선우, 장진호, 전현수, 최용준, 최재원, 허승범, 홍성대, 홍진원, 황순권

신입생 OT



2017년 2월 17일에 대강당에서 신입생 1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과거의 나보다 더 성장한 나

1-1 담임 구정희

따뜻한 봄기운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계절을 맞이하며,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1학년 여러분은 자아를 탐색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으면 합니다. 학문 이전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본질을 알고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세요.

꿈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세요, 질서를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매일 아침에는 계획하고, 낮에는 성실히 노력하고, 저녁에는 반성하세요. 앞으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인연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공부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돕겠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보람차게 1학년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신입생에게 전할 글

1-2 담임 이은형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대면을 한 1차 오리날, 참으로 선한 인상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고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행복과 행운이 따라오는 것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열정으로 목표를 이루고 함께 사람으로 선을 이루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환일 신입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첫 마음을 잊지 말자

1-3 담임 홍승강

‘始勤終怠(시근종태)는 人之常情(인지상정)이니, 願終懷如始(원종신여시) 하소서’

한명회가 성종에게 남겼던 유언입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지내다가 끝나갈 때에는 흐지부지 태만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나 마지막까지 신중하고 삼가는 것을 처음과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설렘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보고 결심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대하에 합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속상한 일도, 화가 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첫 마음을 잊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굳은 결심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고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나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용비어천가의 한 대목으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꿈같이 글을 읽으며 첫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불휘 기쁜 남강 바람에 아니 뵈세, 꽃 도쿄 여름 하나니 새미 기쁜 물은 가마래 아니 그을세 내히 이리 바라래 가나니...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환영합니다!

1-4 담임 배수화

2017년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에 앞두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친구들은 좋을까, 선생님들은 무섭지 않을까, 고등학교는 공부할 게 많ادن데... 아마도 막연한 두려움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이 공존하리라 생각합니다. 환일고등학교에는 여러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온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첫 관문을 의미합니다. 입학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지요. 자신의 꿈을 위해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생활해야할지 많이 고민하시고, 계획하여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환일고 신입생들과 함께 할 2017년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O.T를 마치며

1-5 담임 최진성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밝고 활발하며 희망에 찬 학생들이 문화학원에서 새로운 길을 열기위하여 환일고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였습니다. 매년 오리엔테이션이 새롭고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더욱 즐겁고 기대에 찬 학기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어 처음 보는 학생들과 또한 급우들과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더 알 수 있고 우정을 다지며, 학교를 알고 담임 선생님들과의 면면을 익히는 좋은 자리가 되는 부분으로서 참 좋은 출발점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강원도 정선 하이원에서 시작되었으며 2월 20일 첫날은 스키와 보드를 타며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협동심을 배움으로서 첫 단추를 꿴었습니다. 둘째 날은 스키도 배우고 학교의 교육과정과 부서들의 지원을 알게 되는 자리를 통하여 학교 적응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레일바이크도 타고 수영도 경험하는 좋은 체험의 장이 되었으며 마지막 날까지 알찬 즐거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환일고등학교 새내기 1학년들! 모두 선배들의 업적에 다가가실 수 있게 노력하여 좋은 성적과 뛰어난 인성을 갖추는 큰 사람 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환일고등학교와 선생님들은 모두 도와주고 끌어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가지고 온 꿈을 여기 이 문화 학원에서 이루길 기원합니다. ^^

아름다운 만남

1-6 담임 최선영

우리 학교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3월이면 개나리, 벚꽃이 등교로에서 여러분을 반겨주고, 5월이면 아카시아 향기가 교정을 가득 메울 것이며, 가을이면 은행나무가 시야를 노랗게 물들일 것입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한 이 곳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 번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째, 좋은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앞으로 3년간 함께 가야할 쉽지 않은 길에서, 친구는 그 길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는 가장 좋은 경쟁자이며, 동지입니다. 좋은 친구를 얻으시고, 여러분 역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둘째, 선생님과의 좋은 만남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시려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스스로의 능력을 깨우치는 법을 터득하시면서 점차 발전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곳에서 여러분은 자신과 아름답게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발굴되지 않은 원석을 품고 있는 보석들입니다. 자신만의 보석을 마주하시고, 이것을 꺼내어 다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플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안에 들어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3년후, 졸업식에서 여러분 모두의 손에 스스로 갈고 닦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보석이 놓여 있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1-7 담임 김동현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중학교 졸업에 대한 기쁨도 잠시, 여러분은 보다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 시절과는 다르게 많은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철없던 중학생 시절의 때를 벗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단순한 학습방법으로 좋은 성적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즐기면서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성적향상과 자기계발을 겸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여러분의 진로희망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중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선생님, 학교,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알고 일생에 단 한번뿐인 고교시절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담임교사로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환일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여러분의 외적인 성장에 맞게 내적인 성숙을 함께 이루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졸업을 하고 여러분이 꿈꿔왔던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길 바랍니다.

꿈을 향한 도전!

1-8 담임 정지호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설렘은 잠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새로운 생활의 적응 등 고민 또한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을 현실화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고등학교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 때가 오리라(갈라디아서 6:9)’ 는 성경 말씀처럼 자신의 목표를 향한 끝없는 도전은 분명 졸업이라는 결실의 날에 좋은 선물을 안겨 주리라 믿습니다. 환일의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겠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 - 앙드레 말로 -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9 담임 이은주

2017학년도 환일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교사로서, 고등학교 시절을 먼저 지낸 선배로서 학교를 다니며 느꼈던 바를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실패와 성공은 학습입니다. 시험을 본 후 간혹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면 잘 하는데 안 해서 그래요. 다음에는 열심히 하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은 대개 끝까지 안합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양과 시간을 고려하여 공부를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단 30분이라도 그 계획을 실천하고 성공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 큰 성취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무기력감이 학습이 되어 “다음에는...” 을 반복하게 됩니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잘 활용하고 스타디장을 만들어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통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둘째, 학창시절의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평생의 좋은 친구를 사귀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란 단순히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며,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고 어른이 되었을 때도 학창시절의 친구는 꾸밈없는 나를 보여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인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사람은 논리적인 사고 이전에 감정적 반응이 더 먼저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보세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면 더그렇게 용서가 되도,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하면 미울 때가 있지 않나요? 교사도 학생을 대할 때 평소예 예의바르고 인사를 잘하는 친구에게 한번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을 향한 존경을 담은 인사 한번이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일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3년후 나는?

1-10 담임 이준형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입학에 즈음하여 격려의 글을 몇 자 적어봅니다. 며칠전에 중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에 입학할 때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 있었나요? 혹시 하루하루 정선 없이 살다가 별 생각 없이 졸업식을 맞이하지는 않았나요? 다시 중학교 입학 때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3년후에는 환일고를 졸업할 것입니다. 졸업식 때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막연히 ‘지금부터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미래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루하루를 쉽게 쉽게 생각 없이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뭐든지 부모님이, 또는 선생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잘 되겠다?’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하루하루를 분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만큼 꿈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2017년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정우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환일고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환일고는 역사와 전통이 깊으며 학생들을 여러 명문대학교에 보내는 명문 고등학교이며 동시에 엄격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학교 예비 소집일 첫날, 소문에서 들은 바와 같은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앞으로의 3년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율을 통해 단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경험을 쌓으며 한층 더 성숙한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름다운 가치사전'이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책을 읽어보면, '끈기란? 영긴 실을 다 푸는 것. 다음부터는 이렇게 영기지 않도록 실을 잘 감아 두어야겠다'고 써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것입니다. 苦盡甘來(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영긴 실을 풀어가는 끈기를 가지고 학업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도 잘 풀어나가고, 선생님의 진심 어린 훈육을 통해 사회의 떳떳한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 나가는 환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보람찬 3년을 기억하면서 파이팅 합시다.



김재혁

다양한 학교에서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채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설렘과 걱정, 기대 등의 여러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나 또한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학급 친구들과 과의 1년이 설레이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고등학생이 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3년이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이다. 또한 여러 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이란 시간의 레이스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잘 달리기 위해서, 실패를 딛고 극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과 같은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입학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신입생으로 친구들을 배려하고 서로 도우며 미래의 꿈을 계획하는 환일고등학교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세빈

출신 중학교가 환일중학교라서 환일고등학교에 대한 첫 인상이 남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3년 동안 자주 뵈었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인지 익숙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다르다'는 말씀도 머리 속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목도 중학교와 달리 다양하고 공부해야 할 양도 많아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중학교에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고등학교와는 달리 실제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니 약간의 압박감에 결심을 다시 다져봅니다. 환일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등이 잘 짜여져 있어서 공부하기에 좋은 학교라는 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사특강, 진로체험 등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생활해서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학교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저는 2017년 환일고에 입학한 김건희입니다.

중학교 졸업 후 대학이라는 등용문을 오르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 생활을 환일고등학교에서 시작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직은 어색하기만한 교복들과 이르기만 한 아침 등교 시간, 그리고 중3에서 다시 고1로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한 동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환일고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에 하루 빨리 중학교 생활에서 깨어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이 편한 이유는 내리막길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힘든 이유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일고등학교의 등푼길 언덕처럼 대학까지의 언덕 길은 가파르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환일고등학교에 다녀 3년 뒤에는 그 무엇보다 편하기만 한 내리막길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일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다시 한 번 영광이며, 훗날 학교를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날자!! 환일

환일 찬가

작사 작곡 박우빈
미디 편곡 해피원

♩ = 100

mp CM7 Dm7 FM7

나 어릴적에 - 꿈꾸던 세 - 상이 있네 - 그 세상 - 아름다운 - 세
조금껏을 - 또 그 꿈이현 - 상이 있네 - 이 세상 - 우리 양심의 - 세

5 CM7 CM7 Dm7 FM7

- 상 - 너와 내가 - 세로 일 - 을수 있는 - 그 세상 - 내가 원했던 - 세
- 상 - 너와 나는 - 세로 의 꽃 - 이 되 있네 - 이 세상 - 주가 한 드신 - 세

9 CM7 FM7 C/E Dm7 G

- 상 - 나 보다 - 우리를 위 해 서 - 열정과 - 능력 을 - 바

13 CM7상 FM7 Em7 Am7 Dm7 D7

- 채 - 이 형한 - 언덕을 넘 어 서 - 세 - 서로 의 - 날 - 게 되 어

17 Gsus4 G C2 Am7

2번째 --> Dmajor 전조

21 FM7 C/E Cm6/Eb Dm7 G C2 Am7

우 리 가 원 하 고 배 라 언 너 와 나 의 - 세 - 상 - 오 환 일 - 환 일 -

To Coda FM7 G C FM7 G C FM7 G C

1. 8 Dm7 G2 G C D7/C Cm7 F/C Fm/C C

2. 8 Dm7 G2 G C D7/C Cm7 F/C Fm/C C

너와 내 - 가 함께 - 날 - 자 - 내 가 너와 내 - 가 함께 - 날 - 자 -

31 Dm7 G2 G C D7/C Cm7 F/C Fm/C C

너와 내 - 가 - 함께 - 날 - 자 - - - - rit. - Fine

제64회 졸업식



2017.02.06.(월) 환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제64회 졸업식이 357명의 졸업생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졸업식에는 설립자 김예환 박사님, 김은미 교장님, 지상욱 국회의원, 노용래 국회의원, 최판술 서울시의원, 중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이동성중립동장, 학부모 회장님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졸업식장 입구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졸업생들이 제작하여 장식한 졸업기념 메시지 벽화가 포토 존으로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환일의 졸업생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어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될 것을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방과후학교 및 특기적성 수업 소개

본교는 정규수업을 마친 뒤 여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로 짜여진 방과후학교 수업과 특기적성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능력을 계발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및 특기적성 수업은 전학년을 단과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은 국영수 및 탐구 과목 중심으로 수준별(심화수준, 보통수준, 기초수준)로 수강 신청에 따라 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 자신이 부족한 과목을 선별하여 수준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특기적성 수업은 입시체육반, 야구반, 축구반, 농구반, 헬스반, 미술실기반, 성악반, CCM반주법(피아노), 원어민 영어회화, 중국어회화반, 논술반 등 체력을 단련할 수도 있고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도 있는 등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다.



스키캠프



2016년 동계스키캠프(리더십캠프)가 12월28일 방학식날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6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고 동계 스포츠활동과 리더십트레이닝을 통해 건강하고 멋진 리더가 되기 위해 실시한 이 캠프에서는 매일 저녁 진행되는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전체학생들이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여 리더의 자세에 대한 조별발표 및 김은미 교장님의 특강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오전과 오후에 스키와 보드 강좌를 통해 동계스포츠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동아리 소개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동 관심사와 취미에 따라 다채로운 체험중심의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사고력, 탐구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 본교는 2016년 창체동아리 47개와 자율동아리 48개를 운영하였다.

TESAT을 준비하고 경제 관련 공부를 하는 HWANIL ECONOMICS, 정치 외교 활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YUPAD,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합창반, 경건한 찬양과 복음을 전파하는 경배와찬양단, 학교 신문인 은행나무를 편집하는 교지편집반, 한국모의국제회의를 비롯한 모의유엔대회와 영어토론대회를 준비하는 KIMC 등의 동아리가 있다.

KIMC

한국모의국제회의를 비롯한 모의유엔대회와 영어토론대회를 준비하는 동아리로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자료 탐색 및 의견 개재를 통해, 영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균형 잡힌 능력을 키우고, 대학 진학에도 활용한다.

UN 모의국회에서 제시될 만한 주제를 연구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각 나라 대표의 입장이 되어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Mentors

교육 관련 동아리 Mentors(멘토스)는 교육관련 활동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창설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교육관련 분야에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하여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별로 친숙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교육제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도 한다.



HWANIL ECONOMICS

경제 및 경영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모여 함께 신문스크랩을 하는 NIE활동을 통해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경제 특강, 경제 관련 기관 견학 등을 통해 경제관념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이다. 또한 TESAT(경제 이해력 검증 시험)을 준비하여 학과 지원에 대비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접하기 힘든 경제관련 기관(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사박물관 등)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YUPAD

YUPAD(Youth Union Politics And Diplomacy)는 2009년 3월에 공식 출범한 동아리로 정치 외교 활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사 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제작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방문이 힘들었던 국회와 외교부의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정기적 총회를 통해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과 교류하고 서로 간에 정치, 외교에 관해 토론하고 논의한다.



대입 합격 현황

(2017. 2. 24 현재)

2017 대입	서울 최상위 10개 대학(명)										육사	과기원	서울 수도권 대학	기타 4년제 대학
	서울	연세	고려	서강	성대	한양	중앙	경희	외대	시립				
인원	3	21	30	4	3	10	5	9	3	6	1	4	139	122

校 歌

조 지 훈 작 사
박 태 준 작 곡

고운 꿈상 피어나는 봉학산 마루머
온누리 를 굽어 보 는 높은 집 있 다
미쁘신 하 나 님 의 뜻 을 받 들 어 명
사 랑 으 로 어 둔 땅 에 햇 불 을 든 다 아
환 일 환 일 우 리 - 환 일 거 록 한 이 름
기 리 두 고 우 리 마 음 거 울 이 된 다

2017학년도 주요행사

3월	4월	5월	6월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 시업식, 입학식· 3/6 신입생환영예배· 3/21 수업공개 및 진로지도날· 3/24 학교운영위원회· 3/29 명사특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7 부활절축복예배· 4/19 명사특강· 4/21 학교운영위원회· 4/27~5/4 중간 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 재량학습일· 5/12 체육대회· 5/15 스승의 날 행사· 5/25 학교운영위원회· 5/26 고1,2 합창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3~16 고2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6/16 고1,3 등행훈련· 6/23 안보특강· 6/23 학교운영위원회· 6/29~7/4 기말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0~11 심령부흥회· 7/14 전교학생회장선거일· 2학기학급정, 부회장 선거· 7/19 한여름밤축구대회· 7/20 방학식, 간부수련회· 7/24~8/5 방과후 학교